

대구대학교 제18대 노동조합 임기를 시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은 이철환·이승희는 처음 다졌던 그 마음과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는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제18대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어 조합원들과의 소통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단결의 힘으로 당당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곧 직원공동체의 운명과 품격임을 가슴에 항상 새기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위기와 경영 부실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집행부를 결심하고 맡은 동지들과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주요 사업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회 동지들과 함께 항상 지켜봐 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유일무이한 힘은 단결입니다. 집행부의 성심을 다하는 활동이 단결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포용하고 아우르는 조직으로 조합원들의 희망을 열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위기 극복, 상생의 노동조합’을 지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생존터를 붕괴시키거나, 유무형으로 노조를 분열시키거나 탄압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18대 노동조합의 이철환·이승희가 먼저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결속을 다져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기총회에서 대구대학교 제18대 노동조합의 가야할 길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부위원장 이철환·이승희 올림